



한국고분자학회
39대 회장 윤 호 규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듯한 싱그러움과 따사로운 광영이 회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고,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는 임인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수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학회를 잘 이끌어주신 전임 이준영 회장과 이승우 전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속 가능한 학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바탕과 주춧돌을 세워 주신 역대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좇아 매진하는 것,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는 모두 끝이 없는 여정이며, 또한 멈추는 순간 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을 잘 아시는 회원 여러분의 열정으로 우리 학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학회 중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은 학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연인원 4,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매년 2,100 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회원들 간의 공사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소통과 교류였으며, 그래서 마련되는 교류의 장에서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와 도리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가일층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체되고 있는 듯합니다.

다양하게 생겨나는 여타 학회로의 회원 이탈이 눈에 띕니다. 아낌없이 후원해 주는 기업체는 애써 출장으로 학술대회에 참가할 만큼 매력을 못 느낍니다. 매머드 학회로 발돋움하였지만, 그렇다고 회원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발표 논문 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힘이나 보상이 아닌 매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 소프트 파워라면, 그래서 그것이 인류 열풍으로 전 세계를 물들게 하였다면, 이 파워가 우리에게도 당장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회는 건전하고 건설적이며 에너지와 창조성, 그리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소프트 파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신진연구자 중심 웨비나, 부문위원회 신설을 위한 기틀 마련 등이 올해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이 될 것이고, 학술대회를 축제 분위기에서 개최하는 것이 제가 주장한 공약이지만, 이러한 사업의 기저를 형성 하는 가치는 소통과 교류이며,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학회의 소프트 파워를 더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근본일 것입니다. 산학연 회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학회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상컨대 올해도 사업 대부분이 온라인 내지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루어질 듯합니다. 소통과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회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기우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렇다면 시스템적이지만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유연하지만 진리와 도리 추구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학회를, 2023년 산업체 회장을 수행하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님과 함께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학회 발전의 근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한껏 불러일으킬 만한 달콤한 매력이 쌓이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부디 지도 편달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 하시고 행복한 2022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윤 호 규